



2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29	1.22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056.61	1,166.78	↓ -9.44	↓ -4.28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5,862.35	6,307.13	↓ -7.05	↓ -1.95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6,285.77	48,878.54	↓ -5.30	↓ -3.07	25,981.24 '20/03/23	49,792.12 '21/01/20
중국	상해종합	3,483.07	3,606.75	↓ -3.43	↑ 0.29	2,660.17 '20/03/23	3,624.24 '21/01/25
	심천종합	2,335.05	2,456.24	↓ -4.93	↑ 0.24	1,609.00 '20/02/03	2,462.85 '21/01/25
홍콩	H	11,208.78	11,677.45	↓ -4.01	↑ 4.38	8,559.64 '20/03/19	11,960.49 '21/01/25
	항셱	28,283.71	29,447.85	↓ -3.95	↑ 3.87	21,696.13 '20/03/23	30,159.01 '21/01/25
한국	KOSPI	2,976.21	3,140.63	↓ -5.24	↑ 3.58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29	1.222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33	2.22	↑ 10.60	↓ -25.3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21	6.27	↓ -6.10	↑ 32.1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5.91	5.91	↓ 0.00	↑ 4.10	5.75 '20/05/28	6.60 '20/01/31
중국	3.19	3.13	↑ 5.90	↑ 3.9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77	1.76	↑ 1.00	↑ 4.30	1.26 '20/03/09	1.78 '21/01/25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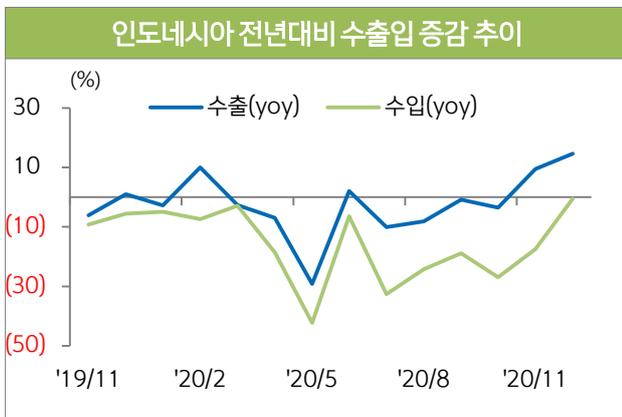
구분	1.29	1.222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49.00	23,074.00	↓ -0.11	↓ -0.21	23,049.00 '21/01/29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030.00	14,035.00	↓ -0.04	↓ -0.14	13,634.00 '20/01/29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2.95	72.98	↓ -0.03	↓ -0.16	71.20 '20/02/06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3	6.48	↓ -0.83	↓ -1.52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18.60	1,103.24	↑ 1.39	↑ 2.95	1,081.81 '20/12/04	1,285.73 '20/0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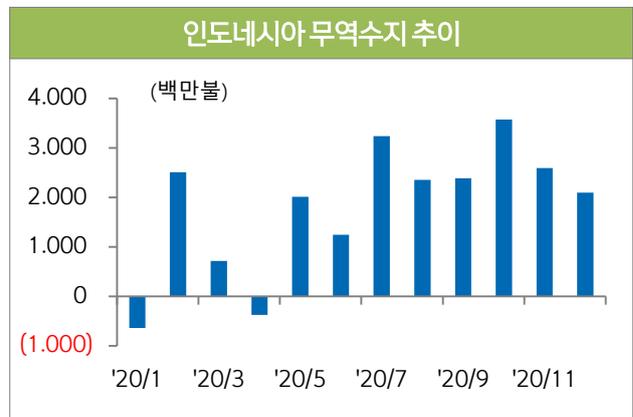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12월 인도네시아 수출입 개선세 지속 확인. 다만, 중국 긴축 기조 변화 가능성에는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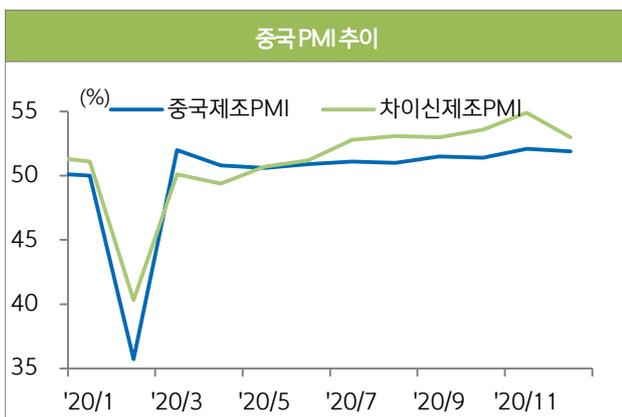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12월 수출은 전년대비 +14.63%, 수입은 전년대비 -0.47%를 기록하였음. 수입이 전년대비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2020년 하반기 내내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12월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를 기록**.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연간 무역수지는 217.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서 2011년 260.6억 달러 흑자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200억 달러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 인도네시아의 수출 개선은 빠르게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난 중국의 경제 회복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부문의 수요 증가에 따라 원자재 수입이 증가한 것과 함께 농산물, 산업 금속 등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 적으로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 원자재들의 가격 상승흐름이 이어진 것이 수출 증가로 나타났음**. 수입은 국제 유가가 OPEC+의 감산 지속과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수요 증가로 상승하면서 석유류의 수입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 인도네시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가 日 12,000명 대로 늘어나는 등 여전히 확진자수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재 및 투자용 기계기구 등의 수입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코로나19가 통제되어야 국내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입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수출 및 무역수지의 개선이 상당부분 중국의 경기 회복에 기인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지난주 중국 인민은행이 자금 수요가 높아지는 춘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시중 유동성을 흡수한 것에 대해 긴축 전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은 경계가 필요한 상황임**. 2월초 다시 춘절용 유동성을 방출한다면 우려가 낮아지겠지만 중국 경제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원자재 수요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에 주의 필요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IMF 2021년 글로벌 성장률 상향 조정. 다만 '예외적 불확실성' 경계



❖ 요약 및 시사점

IMF는 분기 경제 전망에서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음.
10월 대비 백신 완료 및 접종의 시작에 힘입어 전세계 성장 모멘텀이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임. 다만, 선진국들의 성장이 먼저 개선됨을 감안하여 빈국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IMF는 지난 화요일(1/26) 글로벌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하였음. 작년에 대공황이래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반등한다는 전망이다. IMF는 전세계적으로 1억명이 넘는 확진자와 21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코로나에 대해 다양한 백신이 승인이 나고 백신 접종이 몇몇 국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IMF는 글로벌 경제에 '예외적인 불확실성' 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계를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나 대규모 재확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음.
- IMF의 Gita 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WHO의 COVAX 백신 정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공동 대응하고 더 평등한 백신의 보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감사하였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Gopinath는 말하였음. "여전히 수없이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 위기가 전세계에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음.
- Gopinath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제가 2020~2025년 사이에 보건 위기를 빠르게만 종식해낼 수 있다면 90조 달러 규모의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선진국들로 하여금 가난한 신흥국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식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당장 선진국들이 집행에 나서주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로이터와 인터뷰하였음.
- IMF는 9천만명 가까운 사람이 2020~2021 사이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고 추정하였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22조 수준의 생산창출이 날아가고 과거 20년간 진행되어온 빈곤 퇴치를 위한 작업의 성과가 쓸려나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Gopinath는 선진국들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을 위한 원조나 저리 차관,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서 도와줄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였음. "여전히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최소한 이 지역들은 작년의 마이너스 성장과는 다르게 + 성장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음.

(뒷면 계속)

- 최근 세계 경제전망 자료에서 IMF는 세계 경제가 2020년에는 -3.5%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존의 -4.4%보다는 성장률 하락이 덜하였던 것으로 보았음. 예상보다 20년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의 회복이 나왔다는 판단임.
- 2021년에는 5.5%의 성장을 전망하여서 10월 전망 대비로는 0.3%p의 성장률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았음.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면서 미국, 일본 및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의 재개로 회복이 나타난다는 전망임.
- IMF는 미국은 2021년에 5.1% 성장이 예상되며, 2020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강한 성장 모멘텀이 유지되고 9천억 달러 수준의 추가 재정 부양책의 집행을 통해서 지난 10월 전망시보다 2%p 성장률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만약 미국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만회 재정 부양 책을 통과시킨다면, 향후 3년간에 5%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1년에 8.1%의 성장을 전망하였고, 2022년에는 5.6%의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음. 이는 각각 8.2, 5.8%였던 지난 10월의 전망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임. 인도에 대해서는 2021년 11.5% 성장을 전망하여 10월 전망대비 2.7%p를 상향 조정하였음. 2020년의 회복이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근거에서 있음.
- IMF는 각국들이 지난해의 대규모 침체에서부터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정상화 시점까지 경제를 계속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하였음. 저소득 국가들은 보조금, 저율 대출, 채무 완화 등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이 필요하며, 일부 국가는 채무 재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IMF는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예상 390억 달러로 증액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 충분히 다 집행하지 못한 경제 회복 예산을 포함하여 2021년에 경제 회복 예산 집행을 더욱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음.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민에 대한 백신 무료 접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재정 소요 금액이 증가한 것임. 경제 회복에는 긍정적이겠지만 늘어나는 부채 부담은 금융시장에 부담요소임

- 인도네시아가 국가 경제 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553.09조 루피아(394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표임. "핵심 내각 회의와 여러 다른 회의들을 통해서 저희는 회복 예산 규모를 553.09조 루피아로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 비슷한 지원 조치를 늘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Airlangga Hartarto 수석 경제 장관이 말하였음. 앞서 승인 받았던 규모는 372.3조 루피아였었음. 물론 승인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무료 백신 접종이라는 방안을 내세우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에는 692.5조 루피아를 책정하였었으며, 주로 병원의 확장 및 개선과 의료 장비의 개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비/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구성된 예산은 최종적으로 579.78조 루피아를 집행하는데 그쳤음.
- 인도네시아는 지난 화요일(1/26)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누적 확진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음. 인도네시아의 확진자수 및 사망자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
- Airlangga 장관은 104.7조 루피아 규모로 기존대비 4배로 증액한 보건 지출 계획을 공개하였음. 관계 기관들은 또한 공적 보조 규모를 당초 110.2조 루피아에서 150.96조 루피아로 증액하였음.
- 해당 자리에서 재무부 관료인 Febrio Kacaribu는 2021년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5.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앞선 전망치와 변동은 없다고 말하였음.
- 2020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6.1% 적자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십년간 중 최대 수준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임.



순환 경제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GDP에 450억 달러 부가가치 창출 예상



❖ 요약 및 시사점

국가개발계획위원회는 덴마크 및 UNDP 등과 함께 순환 경제 모델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순환 경제를 도입할 경우 탄소 감축 및 신규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고 분석하였으나 아직까지 산업계의 인식 부족 등 재활용/순환경제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장애 요인임

-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부문에 순환경제를 적용하는 것이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에 593조 루피아(422억 달러)~638조(450억 달러) 수준의 GDP 부가가치를 창출해 줄 것이라는 리포트가 발표되었음. 이러한 순환 경제를 접목하는 것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음.
- 1/26에 발표된 리포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부문 가운데 5개 산업에 대해서 순환 경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언급된 5개 산업 부문은 섬유 산업, 소매, 전자제조, 건설 및 식음료 부문임.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GDP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 4,300만명 가량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문이었음.
-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위원회(Bappenas)와 UNDP 등이 공동으로 작업한 보고서임. 순환 경제 모델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여러 자원들을 재활용 하는 것까지의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보건,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산업 부문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
-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그대로의 사업 방식으로는 5개 핵심 산업 부문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규모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오래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향후 10년간 62% 증가하면서 2030년에는 도시화와 소비자 증가 영향까지 받아서 1억 5,530만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였음. 반면, 순환 경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폐기물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보다 2030년에 18~52%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순환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2021~2030년까지 4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고 특히 늘어나는 일자리의 75% 가량은 여성인력을 위한 일자리로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고, 관련 공급망을 단단하게 구축하면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순환 경제 모델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설명하였음.
- 해당 리포트는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순환 경제의 장기적인 혜택을 일깨우고, 유럽 국가들이 진행해온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규모보다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개념에 대해 적용할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음.

(뒷면계속)

- 순환 경제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그러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임. 인도네시아는 2020년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겪은 힘든 상황임.
- “이번 리포트는 순환 경제와 관련한 국가 행동 계획을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Bappenas의 Suharso Monoarfa 의장이 지난 월요일 화상회의에서 발표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순환율은 지난해 8.6% 수준이었으며, 이것은 광물, 화석연료, 금속 및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고 8.6% 수준만 경제에서 재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수치는 2020년 자원순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의 9.1%보다도 낮아진 것임. “순환 경제는 특정 상품, 금속 및 자원들을 최대한 오래 사용가능하도록 사용 주기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Bappenas의 해양 및 천연 자원국 담당인 Arifin Rudiyanto가 말하였음. “순환 경제는 우리로 하여금 덜 쓰게 만들어 줍니다.”라고 하였음.
- Arifin은 효율성의 증대로 인해 산업 부문에서 낮은 수요로 인해 낮은 생산이 나타나고 성장이 낮아지는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재투자가 관건이라고 하였음. 그래서 그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승리하는 이해 관계자와 실패하는 관계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
- 효율성은 또한 2030년까지 기존대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 순환 경제 모델을 적용하면 1억 2,600만톤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여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음.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줄여야 하는 이산화탄소 등기물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임. “우리의 공통 환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이는 이전보다 더 핵심적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덴마크 환경부 Lea Wermelin이 말하였음.
- 5대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순환 경제 모델 적용은 더 많은 전자제품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더 많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건설하며, 운송 과정에서의 식품품 유출을 줄이고, 소매점 등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리포트는 언급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는 2020~2030년 사이에만 해도 연간 307.7조 루피아 가량의 투자가 소요되며, 이 금액 가운데 절반 가량은 고에너지 효율 건물을 건설하는 것에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분석되었음. 이는 인도네시아의 2020년 연간 투자 금액 826.3조 루피아에 비해 상당한 규모임.
- “모든 사람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모두 이해 관계자들이 순환 경제를 위한 적정 소비 필요를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 개발 사업 위원회의 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Shinta Kamdani이 말하였음.
- 그녀는 인도네시아 순환 경제포럼(ICEF)이 앞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사업계가 순환 경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0개 장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던 것을 언급하였음. 이중 가장 우선시 되는 3개 장애 요인은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어려움, 제한된 인프라, 낮은 법적 구속력이라고 언급되고 있음.



인니 정부, 백신 접종과 예산에 중점 둔 2021년 경제 회복 전략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경제 조정 장관은 우선 연초부터 빠르게 의료진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경제 활동 정상화에 나서면서 경제 회복 예산을 늘려서 중산층의 구매력 보존을 통해 소비-투자로 이어지는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에 맞춰 조만간 일자리 창출법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은 2021~2022년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 재상을 위한 정부 전략이 코로나19 면역 확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 확대, 경제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할당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공개하였음. "저희는 2021~2022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장관은 인도네시아 대학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말하였음.
- 정부의 경제 회복 전략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음. 2021년 첫 2달 동안에 정부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신용기금에 253조 루피아를 할당하기로 할당금액을 늘렸음. 2020년에는 190조 루피아를 할당하였고 100% 집행률을 보였다고 그는 말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전히 6개월 만기로 1억 루피아 규모의 대출에 대해 3%의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5억~100억 루피아 규모의 대출에 대해서는 1.5%의 이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1년에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할당을 늘릴 것이라고 말하였음. 보건 부문에 104.7조 루피아를 배정하고, 150.9조 루피아를 사회 보장에 할당하며, 141.3조 루피아를 지방 정부 및 산하기관에 제공, 156조 루피아를 법인 자금 지원에 할당한다고 하였음.
-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할당은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주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일자리 창출 법안 및 관련 52개 파생 조항들도 구가 경제 회복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정부 및 대통령령은 점차 완결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곧 서명하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조코위 대통령, 국부펀드 위원들에게 최대한의 업무 집행을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국부펀드 운영 관리 감독을 맡을 국부펀드 위원 5명에 대한 지명이 지난주 이뤄졌음. 조코위 대통령은 위원들에게 빠르게 국부펀드 운영 계획을 잡고 투자 유치 및 집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음. 국부펀드에 해외 자금을 유치하며 부족한 국내 자본을 보완하여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향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 감독 위원회 임명 자리에서 위원회가 실행되는 즉시 관련된 투자 집행에 나서 줄 것을 강조하였음. “다음주부터 바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다음주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부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한대로 바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집행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은 국부펀드 감독 위원회가 5명의 위원을 지명한 후 말하였음. 새롭게 구성되는 국부펀드 감독 위원회는 전문가풀에서 5명의 이사회 위원들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통령은 위원회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일하고,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들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음.
- 위원회는 재무장관과 국영 기업부 장관으로 지정된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자리 창출 법안에 기반을 두고 있음.
- 3명의 다른 위원들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배경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선발될 예정이며, 여러 선발 절차와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구성될 예정임.
- “저는 이들 전문가들의 과거 경력과 좋은 경험과 명성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투자 위원회가 더 신뢰를 얻게 되고 많은 숫자의 개발 방안들에 필요한 대체 금융 방안들을 찾을 수 있게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하였음.
- 국부펀드는 국내 투자를 목표로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최적화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관임. 국부펀드의 구성은 지난해 통과된 일자리 창출 법안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정해져 있음.
- 국부펀드 감독위원회의 5명의 멤버는 다음과 같이 지명되었음.
 - 1) 재무부 장관 (당연직으로 의장을 맡음), 2) 국영기업부 장관 (당연직)
 - 3) haryanto Sahari (~2024 임기), 4) Yosua Makes (~2025 임기), Darwin Cyril Noerhadi(~2026 임기)



투자조정 위원회, 900조 루피아 투자 유치 목표 달성 조건을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 유치 활동이 부진하였고 사업활동이 둔화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백신접종의 빠른 진행과 일자리 창출 법안의 세부 조항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인도네시아는 2021년 900조 루피아 규모의 국내외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임

- 투자조정위원회 Bahlil Lahadalia 의장은 2021년에 900조 루피아 투자 유치 목표의 실현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들을 만드는 것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특정 조건만 만족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그는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말하였음.
-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가 5~6월 정도면 완료되면서 사업 환경을 개선시킬 것으로 보았음.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면 5~6월 정도면 일단 최소 전체 접종 목표의 절반 정도는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업활동을 회복하기에 대중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 두번째 중요한 선결 과제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법안 완료임. 특히 사업 허가와 관련한 규정, 표준, 절차 및 범위에 대해서 정의가 완료되어야 함.
- 의장은 세번째 조건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에 투자 유치를 일관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시너지를 내는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충분하 시너지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부와 국내외 사업가들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음.
- Lahadalia 위원장은 2021년에 이런 조건들이 감춰지면 연간 900조 루피아 상당의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투자조정위원회의 2020~2024 전략 계획에 따르면, 투자 유치 목표는 4,983.2조 루피아였음. 각 연도별 투자 유치 목표는 2020년 817.2조 루피아, 2021년 858.5조 루피아, 2022년 968.4조 루피아, 2023년 1,009.8조 루피아, 2024년 1,239.3조 루피아 수준임.



무역부 장관, 2021년 수출 6.3% 증가 예상



❖ 요약 및 시사점

2020년의 글로벌 무역 부진을 딛고 2021년 글로벌 무역이 되살아나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도 연간 6.3%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힘입어 원자재가격 및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무역 성과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임

- ▶ 무역부 Muhammad Lutfi 장관은 IMF의 5.2% 성장 전망 및 글로벌 무역 규모의 8.31% 성장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2021년에 6.3%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인도네시아도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장률을 감안할 때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4.4~6.1% 범위 내가 될 것 같습니다. 석유가스 부문의 수출은 6.3%의 증가가 예상됩니다.”라고 재무 장관은 2021년 무역 전망 발표자리에서 말하였음.
- ▶ Lutfi 장관은 올해의 수출 증대를 달성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백신 접종의 성공적인 진행이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무역 상대국에서의 진행도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또 다른 요인은 일자리 창출 법안의 가속화임. “이러한 조건이 만족된다면, 수출은 6.3%의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음.
- ▶ 장관은 여러 나라들에서 장래에 수출 물품들을 증진시킬 목표에 대해서 말하였음. 중국, 브라질, 미얀마 등에 차량 부품들을 수출하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터키, 중국, UAE,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한 금속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 중국/호주/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고무 및 관련 제품의 수출 등도 증진하려는 주요 물품 중에 하나임. “거기에 더해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자제품 시장을 미국, 호주, 중국 등에 개방하는 방향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 ▶ 한편, 무역부는 7.87%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비 석유 가스 부문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미국에 대한 수출은 3.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일본에 대한 수출은 최소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인도에 대해서는 8.67% 성장,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3.8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베트남 등에 대해서도 양호한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수출은 부진을 국내 수요가 지지할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팜오일 산업은 2020년 글로벌 경제 폐쇄의 타격을 받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 B30 정책 등에 힘입은 바이오디젤 수요로 충격을 완화하였음.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팜오일 수요는 점차 살아나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어 팜오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

- 세계 최대인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은 2020년에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음.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의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시장이 영향을 받았지만, 국내에서의 팜오일 수요가 증가한 것이 보완해주었음. "2020년은 코로나로 매우 불확실한 시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팜오일 산업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 자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팜오일 협회(Gapki) 수석 대변인이 말하였음. 그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팜오일 수출은 전년대비 11% 정도 줄어들었음. 국외 수요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서는 바이오연료용 수요 등에 힘입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음.
- 이러한 2020년의 흐름에도 2021년에는 팜오일에 대한 대중성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Tofan 대변인은 팜오일 가격이 팜오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였음. 팜오일의 출하 성과는 상반기에는 전세계적인 폐쇄 조치로 인해서 부진하였음 "전세계적인 폐쇄 조치는 팜오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식물유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부진을 초래했었습니다."라고 하였음.
- 글로벌 팜오일 시장은 2025년 말에는 6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전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 국가이자 5천만 톤의 팜 오일 생산 중 1500만 톤을 국내 수요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임. 팜오일의 주요 수입 국가들은 인도, 중국, EU 순임.
- Tofan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시장이 2020년 3분기 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식물유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것과 결을 같이한다고 하였음. "국내 수요가 증가한 것과 더불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비누 등의 위생 물품 제조용 팜오일 수요도 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하였음. 이러한 보건용 수요 흐름은 지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오일 기반 바이오 디젤 보조금 용도로 1억 9,500만 달러를 지불하였음. 이러한 지원은 B100으로 불리는 석유를 팜오일 기반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출처 : Jakarta Globe)

- 현재는 인도네시아에서 B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연료의 30%를 바이오디젤을 섞은 연료가 주유소를 통해서 공급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2021년에는 B40으로 이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바이오 디젤의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1,500만 헥타르 규모의 추가적인 플랜테이션 농장이 건립될 계획이지만, 환경 단체들의 반발을 받고 있음.
- 금융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팜오일 재배자들은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코로나19 와중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서는 해고도 없었고, 임금 삭감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재배자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거리두기와 건강 검진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음.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지만, 팜오일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디젤의 필수적인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